

투데이 칼럼

지정환 신부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4월 13일은 임실치즈의 대부 지정환 신부님의 속환으로 선종 하신지 1주년 되는 날로 그분의 역사적 발자취를 좇아 보고자 한다.

신부님은 유럽의 강대국들에 의해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어온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한 귀족(벨기에 이름 디디에 엡세르스테번스) 집안의 막내로 1931년12월5일 태어났다.

1958년 가톨릭 사제가 된 그는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아프리카보다 가난하다는 한국을 찾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 이듬해인 1959년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면서 한국과 인연이 시작 된 것이다.

지금부터 61년 전인 1959년 전주 교구 신부로 발령이 나자 현지어인 한국어를 익히다가 훈민정음 원리를 접하게 됨으로서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근본으로 만들어진 훈민정음이야말로 성경의 가르침과 같음을 깨닫고 세상을 상징하는 지구의 "지" 자와 정음의 "정" 자와 성경의 가르침을 널리 환기 시키겠다는 소망을 담아 스스로를 "지정환"이라 이름 지었다.

그로부터 5년후인 1964년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보니 척박한 산골동네에는 가난과 힘겹게 살고 있는 농민들뿐이었으며 잡 풀만이 무성하였다고 한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확산 시키는 길은 바로 현지



김종갑 (재) 임실치즈연구소장 전라경영실장

주민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소독증대에 있으며 그 비결은 잡풀을 이용한 축산업에 있다 생각했다.

그래서 이웃성당에서 산양 2마리를 얻어와 산양을 늘려가면서 주민들에게 산양유를 이용한 "임실만의 독특한 치즈를 만들시다" 라고 호소하였다.

마침내 잡풀밖에 없던 임실지역을 고부가치 농·축산단지 한국형 치즈 중심지로 우뚝서게 되었으며 지금의 임실치즈농협 및 유가공 13개 업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임실군민의 삶을 돕고자 벨기에 지정환 신부는 치즈를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치즈를 만들 수 없게 되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가서 기술을 배워왔으며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

치즈의 원천기술은 다른 사람에게 차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한

기술자의 도움으로 치즈기술을 배웠고 부모님으로부터 2,000달러를 도움 받아 치즈공장을 세웠으며 1967년 치즈를 만드는데 성공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임실 치즈의 역사가 시작 되었다.

한편 70년대 외국인 선교사와 함께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에 동참하여 중앙정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시위도중 경찰에 연행되어 강제 추방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임실치즈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신부라는 보고를 듣고 추방 명령을 거둬두고 한다. 지정환 신부님이 한국에 온지 57년이 되던 해인 2016년 정부로부터 그간의 공을 인정 받아 국적을 취득 받았다.

또한 2019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부인 김경숙 여사가 마틸드 벨기에 왕비와 의 환담에서 "한국인들은 임실치즈를 즐기며 치즈를 통하여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지정환 신부를 존경하고 있다"고

해서 인상에 남는다.

지정환 신부님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2019년4월 13일 오래된 지병으로 향년 88세를 일기로 선종 하셨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치즈공원 조성, 세계절장미원 조성, 임실N치즈6차산업화 지구조성등과 연계하여 "임실N치즈식품관광 명품화" 사업을 중점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임실군은 임실N치즈라는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임실치즈축제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관광객들이 120만명이 찾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5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건립, 임실치즈테마공원 조성, 세계절장미원 조성, 임실N치즈6차산업화 지구조성등과 연계하여 "임실N치즈식품관광 명품화" 사업을 중점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모토로 이제는 국내가 아닌 세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평생 나눔의 삶을 이어온 신부님은 가수 노사연의 노래 "만남"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라도 우연은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귀하게 만났으니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환 신부님의 선종1주년을 즈음하여 평생동안 대한민국 임실치즈1번지로 탄생시킨 마음을 기리고 신부님의 이웃사랑 실천을 본받았으면 한다.

지정환 신부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설

코로나 진정되고 있지만 긴장해야

지난 주말에도 말한 바 있지만 코로나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확진 환자의 수도 신규 사망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이 정도라면 의료진들이 누적되는 피로감이 없이 대처해 주리라는 믿음이다. 그래서일 것이다. 며칠 전에 불교의 법회와 카톨릭의 미사가 2개월만에 재개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다른 모든 종교계도 현장 예배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시민들이 방역 강구에 협조한 덕분이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일상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지만 방역 당국이 시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방역 당국이 이제 했습니다 라고 보고의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적은 수이기도 하지만 확진자도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 까닭이다.

코로나 관련 사실을 쓸 때마다 거듭 언급하고 있거니와 이웃 나라 일본을 반면교사의 사례로 보

아야 한다. 일본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등한히 했다. 그 결과 누적 확진자 수도 사망자수도 우리 한국의 그것을 넘어버린지 오래 되었다.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와 독일도 그렇다.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동안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 협조하는 정신이 부족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미국의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본보기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심각하다. 누적 확진자가 8만949명으로 하루하루 신규 확진자가 6천3백명이나 쏟아져 나왔다.

거듭 말하거니와 예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 우리 전북의 경우도 그렇다. 조심하는 정신태도를 아주 놓아버려서는 안된다.

전북의 경우 이번에 신규 확진자가 1명 더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이 호소하는 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제로의 마침표를 확실히 찍자는 당부이다.

지역 발전에 속도를 내는 전라북도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바람이다. 전북도는 발전 현안에 주목해야 했다. 주요 현안들을 계속 쫓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진정 국면이다. 전북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것처럼 경제 발전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최근 들어서 전북도가 도민에게 밝은 소식을 연달아 전해주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

전북도가 향토기업인 동우팜푸드 테이블과 투자 협약식을 체결한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고창에 15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한다니 말이다. 직접 고용효과가 650명이 된다는 소식도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 고군산군도에 무인 자율주행 차량 운행으로 해양관광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소식도 그렇다. 이렇듯 그 하나 하나의 발전은 도민 모두의 소망이다.

여기 다시 말하거니와 본보는 지난날 전북도에 지역 발전 추진

을 여러 번 주문한 바 있다. 전북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겠다는 것이다. 군산 쪽 영세 기업들이 합류하고 있는 나날이라서 말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요지부동이라서 조선소 가동이 어렵다면 미련을 속히 접어야 했다. 이제 전기자동차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 내후년까지 미투지 말고 추진작업을 서두르자는 것이다. 전기차 생산이 군산형 일자리로 정착했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가 발전 현안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많은 게 사실이다. 도지사 이하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는 이들은 그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삭같이 덤벼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계속 힘차게 달려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제언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농촌에서는 여전히 농기계인 경운기는 온가의 필수품으로 농번기에 없어서 안될 중요한 운송수단이며 교통수단이다. 더욱 대부분 농기계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다른 차량과 부딪힐 경우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운전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촌 도로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속이나 무리한 추월을 하지 말아야한다. 경운기등 농기계는 차량보다 느리고 후미등이 없어 야간에 식별이 곤란해 추돌사고 발생시 생명이 위험하다.

둘째 영농철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민들도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농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농기계에는 운전자만 탑승하고 좌석 옆이나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되며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절대해서는 안된다.

셋째 경운기에 경광등이나 야광반사지를 부착해 야간운행때 추돌사고

를 예방해야 한다. 야간 주행시 반도시 등화장치를 점등하고 반사판을 부착해 차량 운전자에게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엇보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차량에 비해 중상이나 사망 등 피해가 심하게 농기계 운행 시 안전운행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할 것이다.

신서운 교통경찰서 교통관리과

전주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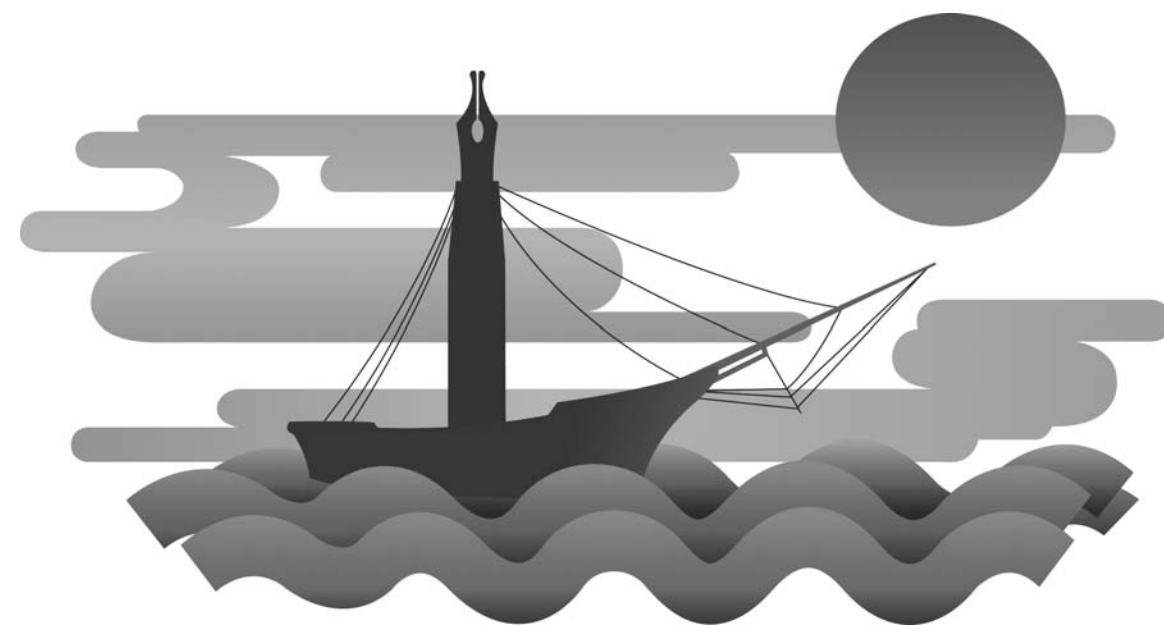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